

9.8.5. 고용형태별 성별 종사자 현황

캐릭터산업의 정규직 남자는 10,700명으로 나타나 전체 45.7%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 여자는 10,075명으로 4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여자는 1,336명으로 5.7%의 비중을 차지하고, 비정규직 남자는 1,295명으로 5.5%의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분류별로 보면 ‘캐릭터개발 및 라이선스업’ 정규직 남자는 1,512명이며, 정규직 여자는 1,108명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 남자는 172명, 비정규직 여자는 146명으로 조사되었다. ‘캐릭터상품 제조업’은 정규직 남자가 4,133명, 정규직 여자는 3,869명, 비정규직 남자는 472명, 비정규직 여자는 489명으로 나타났다. ‘캐릭터 도매업’은 정규직 남자가 869명, 정규직 여자는 776명, 비정규직 남자는 219명, 비정규직 여자는 185명으로 조사되었다. ‘캐릭터 소매업’은 정규직 남자가 4,186명, 정규직 여자는 4,322명, 비정규직 남자는 432명, 비정규직 여자는 516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4.9.55 캐릭터산업 고용형태별 성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중분류	소분류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캐릭터 제작업	캐릭터개발 및 라이선스업	1,512	1,108	172	146	2,938
	캐릭터상품 제조업	4,133	3,869	472	489	8,963
	소계	5,645	4,977	644	635	11,901
캐릭터상품 유통업	캐릭터 도매업	869	776	219	185	2,049
	캐릭터 소매업	4,186	4,322	432	516	9,456
	소계	5,055	5,098	651	701	11,505
캐릭터산업 총합계		10,700	10,075	1,295	1,336	23,406
비중(%)		45.7	43.1	5.5	5.7	100.0

이를 연도별로 보면 정규직 남자와 정규직 여자는 비교적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정규직 남자는 2007년에 10,421명, 2008년에 10,263명, 2009년에 10,700명으로 전년대비 4.3%, 연평균은 1.3% 증가하였다. 정규직 여자는 2007년에 8,185명, 2008년에 8,408명, 그리고 2009년에 10,075명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19.8% 증가하였고 연평균은 10.9% 증가하여 비교적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편 비정규직 남자와 비정규직 여자는 2009년에 2008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2007년의 종사자 수 보다는 감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남자를 보면 2007년에 1,894명, 2008년에 1,247명, 그리고 2009년에 1,295명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하였으나 연평균은 17.3% 감소하였다. 비정규직 여자는 2007년에 1,346명, 2008년에 1,174명, 2009년에 1,33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대비 13.8% 증가하였고, 연평균은 0.4% 감소한 수치이다.

표 4.9.56 캐릭터산업 연도별 고용형태별 성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07년	10,421	8,185	1,894	1,346	21,846
2008년	10,263	8,408	1,247	1,174	21,092
2009년	10,700	10,075	1,295	1,336	23,406
전년대비증감률(%)	4.3	19.8	3.8	13.8	11.0
연평균증감률(%)	1.3	10.9	▽17.3	▽0.4	3.5

그림 4.9.30 캐릭터산업 연도별 고용형태별 성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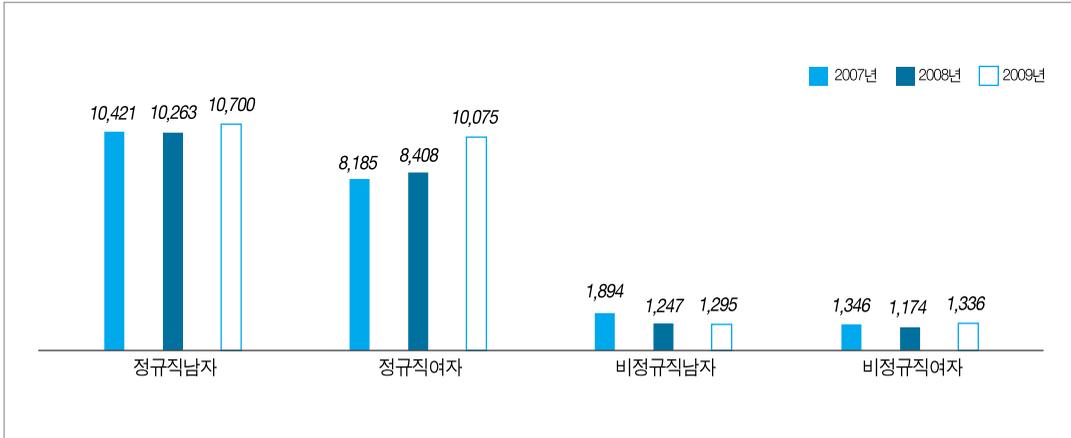


그림 4.9.31 캐릭터산업 고용형태별 성별 종사자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